

리빙 & 아트
컨츄리인형



“못나고 촌스러운 스타일이 매력이에요”



핸드메이드 공예가 김상미씨가 컨츄리 인형 ‘우리들은 1학년 철수와 영희’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다.

**‘신의 핸드메이드’ 공방 운영 김상미씨
 “손이 많이 가는 작품이라 가격 비싸 배우러 많이 와요
 도안 그리고, 솜 채우고, 옷 입히고, 소품 달아주고...
 인형이 완성되면 예쁜 이름도 지어줘요”**

덥수룩한 머리에 올이 풀린 셔츠를 입고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왠지 지저분해 보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정이 가는 인형들이 웅기웅기 모여 있다. ‘시골스럽게’ 생긴 이 아이들은 ‘컨츄리 인형’이라고 불리는 수공예 인형들이다.

컨츄리 인형(country doll)은 형감인형에서 나온 말로, 원조는 미국으로 알려져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어려웠던 시절 마땅히 가지고 놀 것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 부모가 남은 천으로 인형을 만들어 준 것에서 시작됐다고 전해진다. 다양한 자투리 천을 이용해 특별한 규칙 없이 아가자기함도 없이 만드는 것이 컨츄리 인형의 매력이다.

공예가 김상미(41)씨가 운영하는 ‘신의 핸드메이드’ 공방에는 김씨가 만들어 놓은 컨츄리 인형들이 가득하다. 반짝반짝 두 눈을 빛내고 있는 귀여운 아이부터 얼굴에 점 하나가 겨우 박혀 저게 눈이겠거니 싶은 빈티지하게 자란 듯한 아이까지 손으로 아가자기하게 꾸며놓은 인형 수십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컨츄리 인형은 대충 만들어 놓은 듯한 게 매력이에요. 하지만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로 넘어온 컨츄리 인형은 아가자기한 스타일이 주를 이루죠. 꾸깃꾸깃한 천에 대충 만들어진 ‘시골스러운’ 스타일보다는 만화같은 예쁜 얼굴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더 맞아 보더라구요. 하지만 지금도 컨츄리인형을 만드는 전문가들은 못나보고 촌스러운 스타일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컨츄리 인형은 광복전으로 탄생한 인형이지만 여러 가지 표정과 옷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하얀 광복전에 커피나 흥자 등으로 염색을 하는데 염색의 농도에 따라 다양한 인종의 인형을, 솜의 두께로 귀엽거나 빈티지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 단추로 눈을 표현하기도 하고 물감으로 가볍게 점을 찍어 나타낼 수도 있다. 어린아이들에게 선물하기도 하지만 성인들이 취미로 모으기도 한다. 손이 많이 가는 작품이다보니 가격은 대체로 비싸게 팔린다.

갖고 싶지만 구입하기에는 비싼 이유로 공방에는 직접 컨츄리 인형 만드는 법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도 많다. 컨츄리 인형 초보자들을 위해 김씨가 인형 만드는 법을 알려주기로 했다.

하얀 광복에 먼저 인형 도안을 그린다. 다리가 길거

나 팔이 긴 아이들까지 원하는 대로 그릴 수 있다. 그림을 그린 후에는 도안을 여유있게 잘라주고 솜을 채워넣을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 손바느질로 깎매준다.

솜을 채워넣는 공정이 중요하다. 솜이 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금씩 뜯어서 몸통 형태를 잡으면서 꼼꼼하게 넣어주도록 한다. 귀여운 인형은 통통하고 둥글게, 다소 빈티지한 인형은 조금 더 납작하게 솜을 채워주면 된다.

솜으로 채운 후 원단 염색을 하는데 흥자나 커피 원액을 물에 희석한 다음 붓을 이용해 은은하게 칠해준다. 까만색의 인형들은 진하게 표현할 수도 있다. 꾸깃꾸깃 지저분한 인형을 원할 경우 도안을 그리기 전 염색물에 담갔다 빼는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바디가 완성되면, 옷을 만들어 준다. 맞춤복 형식으로 인형 형태에 맞춰 재단해야 입히는데 수월하다. 스타일에 따라 시접을 하지 않고 올이 풀리도록 두기도 하고 예쁜 레이스를 달아주기도 한다. 신발은 천이나 가죽으로 만들어 신기거나 물감으로 신발을 그린 후 실로 신발끈을 표현할 수도 있다. 머리는 털실을 이용해 곱슬머리나 땅은 머리로 표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정을 그려넣고 신발이나 가방, 락 등 소품을 달아준다. 인형이 완성되면 이름을 지어준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예술골목 계림창작촌’ 레지던스 제1기 입주작가 결과보고전

2~10일 은암미술관

은암미술관은 2~10일 ‘MEDIA X FILE’을 주제로 ‘예술골목 계림창작촌’ 레지던스 제1기 입주작가 결과보고전을 연다.

전시에는 나사박, 신도원, 핑크파마 등이 지난 3개월간 레지던스 공간에서 창작한 작품과 주민참여 커뮤니티 아트 프로그램 결과물들을 전시한다.

나사박은 고(故) 백남준 화백을 오마주한 작품을 보여준다. 최근 이슈가 된 백화백 작품의 고장과 이에 따른 복원논란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모니터를 쌓아 만

든 비디오 조각 작품들과 타원형으로 제작된 수제 스크린 내부에 프로젝터를 설치해 보여준다.

미디어아티스트인 신도원은 오픈스튜디오 기간 동안 진행하였던 주민참여 커뮤니티 아트프로젝트의 결과물에 다시 페인팅작업을 한 작품을 설치한다. 또 다수의 비디오 영상작업도 함께 선보인다.

행위예술가인 핑크파마는 스튜디오에서 관객들과 함께 제작한 먹드로잉 작품들과 퍼포먼스 작업의 결과물들을 전시한다. 문의 062-231-5299.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나사박 작 ‘백남준을 기리며’



김화순 작 ‘천개의 바람이 불어’

천개의 바람이 불어

민중미술화가 김화순 개인전 2~8일 무등갤러리

민중미술화가 김화순씨가 2~8일 무등갤러리에서 ‘천개의 바람이 불어’를 주제로 첫 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김씨는 1980년대 말 대학에 입학한 뒤 미술패에서 결계그림과 벽화 등을 제작하며 민중미술 활동을 해왔다. 이후에도 ‘미술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야 한다’ ‘미술은 아픈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람 사는 현장에서 활동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발고랑을 짓기며 내러오는 여성을 표현한 ‘천 개의 바람이 불어’뿐만 아니라 ‘맹목항에서’ ‘아버지 삼 열씨는 우릴 보고 웃는다’ 등 세월호 참사

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들이 전시된다. 또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 위안부 할머니, 세월호 참사 등 우리의 삶, 역사, 현실을 담은 작품들도 함께 선보인다.

전시 작품들은 인간의 존엄과 생명보다 자본의 가치가 우선시 되는 현실의 사회를 신랄하게 꼬집는다. 한편으로는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대동세상을 염원하기도 한다.

전시와 함께 오는 4일 오후 6시에는 세월호가족과 광주예술인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전시장에서 열린다. 문의 062-236-2520.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www.doidam.net

펜션매각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아름다운 펜션(성업중)

광주공인중개사
 임야 상가 전문 **정주경 010-6460-2834**

건평 1093㎡(330평) 대지(잡종지) 17680㎡(5350평)

- 1 문평 IC에서 5분거리
- 2 2차선 도로변 남향 접근성 양호
- 3 연수원, 기도원, 요양원, 요양병원등 적합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증-2696호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의, 전 동신대학교수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진료문의 (062) 227-7575

KT ● 중앙초교 ● 금남로

← 개림동 →

한화생명 ● 주화동 ● 고려우치점

구.한미쇼핑 ● 북경랑 한의원

동부소방서